

(12월 월스기고) 한 진정한 국제주의자의 이야기.

항일국제여단

이연록, 이광 대장이 이끌던 항일연군 1천여명이 만소국경의 동림하에서 갑자기 나타난 일본군 수색대와 교전을 마치고 강가를 따라 전진하는 중, 그들은 동림하 북변 소나무숲에서 수만발의 탄약이 실린 트럭 한대와 죽어있는 일본군을 발견했다.

처음에 항일연군의 독립투사들은 단순히 전투중에 사망한 일본군이 남기고 간 방기물자인 줄 알았으나, 그 일본군이 품 속에 소중히 간직한 편지는 곧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친애하는 반일 유격대 동지들께.

저는 이다 스케오라고 합니다. 산골짜기에 뿌려져있던 당신들의 선전물을 보고, 우리는 당신들이 공산주의자들임을 확신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애국주의자들이자 국제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동의 원수, 파쇼들과 맞서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군에 징집당한 우리들은 파시스트 상관들과 맞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랄도 하기 위해 10만여발의 탄약과 트럭을 탈취하여 당신들을 만나러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포위되었고,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결하기로 했습니다. 트럭을 당신들에게 맞깁니다. 이 탄약 한발 한발이 파쇼들을 향해 사격될수만 있다면 저희의 몸은 죽지만 정신은 영생할수 있을것입니다.

신성한 공산주의의 염원은 이루어지리라!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

관동군 간도일본중대의 일본공산당원 이다 스케오와 그 일동. 1933년 5월 30일에, 조선과 중국의 동지들께'